

# 원 지사 공약 재정 부담 탓 포기 속출

## 도, 도민배심원단 공약 조정·변경안 심의 결과 발표 4·3유족 약값 지원·교통복지회관 건립 등 이행 불가

원희룡 제주지사가 내건 공약 가운데 운수사업종자차 교통복지회관 건립과 4·3유족 약 값(약제비) 신규 지원 등이 무산됐다. 제주도청 담당 부서조차도 재정 부담이 크며 해당 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배심원단 심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도민배심원단은 도지사의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해

선발된 도민 45명으로 꾸려졌다. 제주도는 원 지사의 공약 가운데 10개를 조정·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도민배심원단 심의 결과 이중 8건은 원안 승인, 1건은 보류, 1건은 미승인 결정됐다.

도민배심원단이 승인한 조정·변경안 중에는 제주도 스스로 공약을 이행할 수 없으며 포기한 사업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3유족과 4·3 유족 며느리에게 약 값을 신규

지원하는 공약 사업에 대해 제주도 담당부서는 "이미 4·3유족과 며느리에게 생활 보조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마당에 약값까지 신규 지원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공약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달라고 도민배심원단에 요청했다.

또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 내 호출택시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원 지사의 공약에 대해서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호출택시 대기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다"며 이행을 불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운수 종사자를 위한 다목적 교통복지회관 건립 공약은 부지 확보 어

려움과 예산 과다 소요를 이유로 이행 불가 사업으로 분류됐으며, 불교 종합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사찰 보존비 사업의 경우 자부담분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 측 사정을 이유로 무산됐다.

이밖에 애월해안도로 느낌의 길 조성사업 공약을 경관개선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려면 계획은 도민 배심원단의 보류 결정으로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 졌으며,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 임금제 연구 공약 중 예산과 내용을 변경하려면 계획도 보건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승인됐다.

이상민기자

# 공공·민간 손잡아 윈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 제주는 지금 통합 복지 '실험중'

제주에서는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라고 이름 붙은 이 시범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이름처럼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은 복잡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한데 묶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왜 이런 시범사업이 필요한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봤다.

▷ 왜 통합복지인가=지금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행복이음'이라는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때문에 민간 시설과 공공기관은 저마다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와 복지 서비스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 복

제주에서는 지금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라고 이름 붙은 이 시범사업은 올해로 2년차를 맞았다. 이름처럼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은 복잡한 사회복지 서비스 체계를 한데 묶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왜 이런 시범사업이 필요한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봤다.

▷ 왜 통합복지인가=지금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과 '행복이음'이라는 서로 다른 시스템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때문에 민간 시설과 공공기관은 저마다 관리하는 복지 대상자와 복지 서비스를 서로 공유하지 못했다. 복

# 제2공항 예정지 생산읍 '차분·조심'

## 환경부 반려 결정에 찬반간 갈등의 불씨 여전 지역경기 회복 기대 vs 결정 만족... '폭풍전야'

환경부가 2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공항예정지인 서귀포시 생산읍지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21일 생산읍지역을 둘러본 결과, 기존의 현수막 이외에 또다른 찬반 모습을 주창하는 현수막을 추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피켓시위나 차량시위 등도 없었다. 다만, 찬반 단체나 시민들의 반응은 의문을 요구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제2공항 건설사업은 5조원대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은 물론 우리 같은 상인들이나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다소 아쉽다"고 했다.

반면 생산읍 주민 B씨는 "주민간 찬반 갈등은 물론 비행기 소음 등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번 환경부의 결정은 만족스럽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폭풍전야'처럼 조용하지만, 앞으로 찬반 단체와 주민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또다른 갈등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현질할 생산읍장은 "이번 정기인사(7월 2일자) 이후, 14개 마을 이장

과 지역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제2공항 문제는 장기간 흘러온 상황으로 찬반 주민 모두 발인에 조심하고 있다"며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인한 물리적 마찰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 읍장은 이어 "제2공항 문제는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서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정부의 최종 결정까지는 찬반 모두가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 차원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릴 수 없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찬반 과열에 따른 현수막 훼손 등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졌으나, 그 이후에는 찬반간 의견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상태로 별다른 마찰은 아직까지 없다.

반대측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이고, 찬성측은 부동세가 아닌 반려 결정으로 내부 의견을 조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찬반 모두 생산읍 지역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을 내놓으면서 향후 내부 활동 계획이 세워지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석비행장 활용문제와 비자립로 확장공사도 맞물려 있어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백택기기자 haru@halla.com



참외 세척하는 농민 21일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 도로변에서 한 농민이 방금 수확한 참외를 노지 참외를 정성스럽게 씻고 있다. 강희만기자

# 복지 전달체계 하나로 묶어 복지 대상자 이용 편의 높여

## 특정 대상자 중복 복지혜택 등 문제점 사전 차단 효과도 높아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통해 상담·관리·상담 등 효과 확인

복지 전달체계 하나로 묶어 복지 대상자 이용 편의 높여

특정 대상자 중복 복지혜택 등 문제점 사전 차단 효과도 높아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통해 상담·관리·상담 등 효과 확인

지 서비스 집행 기관이 각각 다른 시스템을 쓰면서 가장 불편을 겪는 대상은 다른 아닌 복지 수요자였다.

예를 들어 노인이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수급 등을)를 받기 위해선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에선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야 한다. 기존 체계에선 복지 수요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받으려면 주민센터, 복지관, 보건소 등을 찾아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민간과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복지 대상자와 서비스를 공유할 수 없어 특정 대상자가 중복해서 복지 혜택을 받거나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사회복지전달 체계가 통합되면서 복지관에서도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등)를 신청할 수 있고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공공기관의 서로의 복지 정보를

공유해 중복 지원이나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한다. 제주도는 2019년 보건복지부와 민간·공공 복지 정보 공유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각각 사용하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대한 기능 표준화 작업을 했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를 도입해 제주시 아라동·노형동, 서귀포시 동홍동 3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했다.

주민센터와 복지관에 종합상담창구를 꾸려 노인·장애인 상담을 포함한 기초수급,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고용 지원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한창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사례관리사 16명을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했다.

▷ 시범 사업 1년 만에 효과=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는 첫발을 내딛지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상담이 급증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성과를 냈다.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가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비스 품질 점수는 5점 만점에 4.37점, 만족도는 4.50점으로 다른 지역(품질 점수 4.13·만족도 4.12점)보다 높았다.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를 도입하면서 만든 종합상담 창구에서 진행된 상담 건수는 지난해 3448건에서 올해 5월 기준 5830건으로 5개월 만에 69% 증가했다.

사회복지관과 공공기관이 협업해 공동으로 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늘어 5개월 만에 지난해 건수의 83%까지 육박했다.

또 시범사업을 실시한 3개 지역에 배치된 맞춤형복지팀이 실시한 찾아가는 복지상담도 초기 상담의 경우 기존 월 평균 34.8건에서 80.6건으로, 모니터링 상담은 25.1건에서 38.9건으로 각각 늘었다.

민·관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면서 다층적인 복지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알코올 의존에 더해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다면 이 정보를 민관이 서로 공유해 공공영역에서는 보건소를 통한 정신건강지원센터 원예치료와 심리치료 서비스 연계하고 민간영역에서는 전문가 상담과 프로그램 참여, 지역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감귤 신품종 분양

2022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몬(레몬),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신품종천혜향, 나스미(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니스

**조생**  
유라조생, 하레조생, 궁천 오하라베니(궁천번이지), 히로시마 7호, 일남1호, 명자묘목(1000본 이상)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증묘

010-2691-1883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 유라 5년생 화분·하레조생

- 원터프린스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레조생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유라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 서귀증묘

064-733-7005, 010-6677-5753

### 감귤묘목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에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 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레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 18-2003-20-08

010-2699-2355

###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하트메간**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겉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생산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하트메간**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종 소과형 감귤!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대조품종 - 제라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라향(천혜향)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갈, 팔삭, 세미늘, 금금, 명유자, 아마니스, 미니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증서와 농촌진흥청 통상시식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생산읍 서성일로 99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